

---

---

# 북한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등장 배경

---

---

정진아  
(건국대학교)

---

## 머리말

### I. 협동화 이후 북한의 농업문제 인식과 정책

1. 농업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2. 공동 소유로의 이행과 기술·문화혁명 추진

### II.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추진 배경과 내용

1. 농업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의 괴리
2. 사상·기술·문화혁명의 추진
3. 경제관리 방법과 소유관계의 전환

## 맺음말

---

● 이 연구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09-361-A00008).

● 투고일: 2016. 8. 5.    ● 심사일: 2016. 8. 10.    ● 게재확정일: 2016. 9. 19.

## 요약

북한정권은 농업협동화 직후 리 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였다. 그 결과 농업협동조합의 평균 규모는 300호, 경지 면적은 500정보로 늘어났다. 새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을 통해 정비된 농업협동조합은 이전의 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조합이었다. 조합원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생산수단이 모두 협동조합의 소유가 되었고, 조합원들은 생활과 소비를 모두 집단생활 속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 농민의 낙후한 생산력과 낡은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1958년을 정점으로 농업생산력은 하락하거나 정체하였고, 농민들은 일탈행위를 일삼았다. 왜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에는 농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고조되는 데 반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는 농민들의 기세가 올라가지 못하는가? 북한정권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데서 문제를 찾았다.

북한정권은 현실적인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속혁명론에 근거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하였다.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제거하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여 농촌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과의 괴리를 극복하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북한정권은 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변모시켰다. 북한정권은 농업이 가진 특성과 협동조합이 갖는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안에서 끌어안기보다는 농업, 농민, 협동조합의 특징을 산만하고 과도기적이며,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공업, 노동자, 국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균질화 함으로써 농민의 사상개조와 농업생산력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협동농장은 소유의 형태는 협동조합적 소유였지만, 운영 방식은 국영농장과 차이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농업협동조합 속에서 자율적인 운영과 연대를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계획에 부응하는 농장원이자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결국 북한 사회주의 농업체제 건설의 로드맵은 완성되었지만, 농업협동조합의 역동성은 조기에 사라지고 말았다.

주제어 : 사회주의 농촌테제(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농업협동조합, 협동농장,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 머리말

북한은 1958년 8월 농업협동화의 완료를 선언하면서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을 선언하였다. 북한이 사회주의를 발전시켜 가는 데 있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고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공업과 낙후한 농업과의 불균형 문제였다. 이에 1964년 2월 김일성은 북한이 표방하는 농업정책의 방향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이하 사회주의 농촌테제)로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북한이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물질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낙후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 등 3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의 완성,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당 우위의 지도 방침 등 북한의 농업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북한 농업정책의 기초로서,<sup>1)</sup> 북한 농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농촌테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다. 또한 농업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원칙은 북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이해하는 것은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농촌테제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는 영성한 실정이다.<sup>2)</sup> 그동안 북한의 농업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

---

1) 김정은, 2014,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참조.

2) 사회주의 농촌테제를 독자적인 연구 주제로 삼아 분석한 연구는 남성욱이 유일하지만, 그의 연구는 북한의 농업 현실과 정책의 변화 속에서 테제를 읽어내기보다는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남성욱, 2004, 『현대 북한의

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 문제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sup>3)</sup> 토지개혁은 남북한 농업체제 분화의 기원이라는 점에서, 농업협동화는 이를 통해 북한 농업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선행 연구를 통해 조선 후기 이래 농업근대화의 모색이라는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북한 토지개혁 문제가 분석되었고, 북한 지식인의 농업문제 인식과 해법 속에서 사회주의 이행기 북한 농업의 특질이 규명되었다.<sup>4)</sup>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농업체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를 통해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협동화 이후 사회주의 농촌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5)</sup> 농업협동화는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단계로 진입하는 기점이었을 뿐, 사회주의 농업체제는 농업협동화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해서 사회주의 농촌체제를 통해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58년 8월 북한이 농업협동화의 완료를 선언한 시점부터 1964년 2월 사회주의 농촌체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북한의 농업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1958년에서 1964년에 이르는 과정은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격변기였다. 1958년~1961년은 제1차 5개년계획이 조

---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한울, 제3장 1964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참조).

- 3) 김주환, 1989, 『해방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이주철, 1995, 『토지개혁 이후 농촌사회의 변화: 1946~1948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6; 김성보, 2000,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북한 농업체제의 형성을 중심으로』, 역사비평사; 진현수, 2002,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대구사학』 68;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장미성, 2009,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의 일상과 내면 연구』 『학림』 30.
- 4) 김성보, 위의 책; 서동만, 위의 책.
- 5) 북한 역시 농업협동화의 완성으로 농민문제, 농업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주의 농촌체제를 통해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길을 처음으로 열었다고 강조하였다(사회과학출판사 편, 1973, 『농민문제,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당의 정책』,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0쪽).

기 완료되고, 1960년의 완충기를 거쳐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이 발표되는 시기로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고조된 시기였다. 1962년~1964년은 북한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악화되는 시기이자,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이 경제-국방 병진노선을 선택한 시기였다.

변학문은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 부각된 사상혁명 선행의 원칙은 미리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전반기 발생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선택이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사회주의 발전 전략의 실패를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sup>6)</sup>

이종석, 서동만, 김연철, 이태섭은 경제 발전 노선을 둘러싼 소련과의 갈등과 원조 감소, 쿠바 사태와 한미일 삼각방위체제 등의 안보위기에 대응해서 북한정권이 군사·경제 병진 노선과 자립경제 노선을 선택하게 된 일련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다.<sup>7)</sup>

위의 연구들은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발표된 국내외적인 배경과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 과정과 특징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였기 때문에 북한정권의 농업·농민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구상, 사회주의 발전 전망을 추적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농촌테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의 연구 목표는 첫째, 1958년 8월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후 196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북한의 농업정책을 검토함으로써 북한 사회주의 농업체제의 성립 과정을 밝히는 것이다. 둘째, 북한정권의 농업·농민문제 인식과 사회주의 발전 전망이라

---

6) 변학문, 2015, 『북한의 기술혁명론: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참조.

7)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152~154쪽;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56~261쪽; 이태섭, 2001,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83~316쪽;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842~845쪽.

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추진 배경과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장에서는 협동화 이후 북한의 농업문제 인식과 정책 방향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협동조합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로의 발전 방향,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 등 농업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과 그 쟁점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농업구조의 변환과 기술·문화혁명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2장과 결론에서는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추진된 배경을 고찰하고, 테제의 내용 및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사상·기술·문화혁명과 소유관계 및 경제관리 수준의 낙후성 척결로 달성하고자 한 목표와 내용이 분석된다면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성격과 한계가 분명해질 것이다.

## I. 협동화 이후 북한의 농업문제 인식과 정책

### 1. 농업을 둘러싼 논쟁과 쟁점

1958년 8월 농업협동화가 완성됨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 단계로의 진입을 선언하였다.<sup>8)</sup> 1958년 9월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과업을 낮은 단계의 사회주의인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에서 높은 단계의 사회주의인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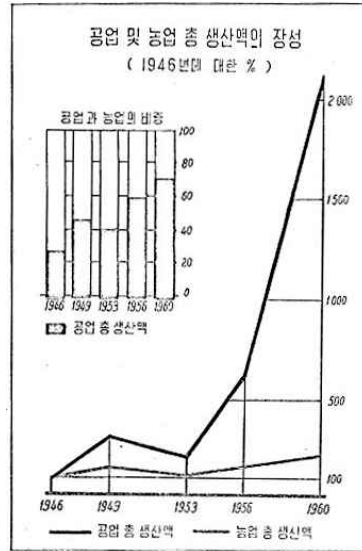
---

8) 한진중, 「우리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 집단 경리의 승리」, 『로동신문』 1958년 9월 3일자;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금후 발전에 대하여-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한 김일성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9년 1월 6일자.

회주의 공업국가로 이행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고도성장을 해 온 공업과 낙후한 농업 사이의 생산력 격차였다.

사회총생산액에서 공업과 농업이 점하는 비율은 1946년 농업 59.1%, 공업 23.2%에서 1960년에는 농업 23.6%, 공업 57.1%로 역전되었다.9) 【그림 1】<sup>10)</sup>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956년 이후 양자의 격차는 현저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농업을 둘러싼 두 가지 논쟁이 일어났다.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sup>11)</sup>로 이행하는 방안과 생산력과 생산관계 논쟁이 그것이었다.



【그림 1】 공업 및 농업총생산액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61,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24쪽.

10) 위의 책, 25쪽.

11) 북한 헌법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전 인민적 소유’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하는 ‘협동적 소유’로 나뉜다. 국가 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로서 대상에 제한이 없고, 협동단체 소유는 협동경리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소유로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를 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2012. 4. 13)』,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2016. 9. 17 접속)]. 당시 논자들은 협동조합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를 병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필자는 협동조합의 변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협동조합적 소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단, 사료를 직접 인용할 경우에 한해서 ‘협동적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먼저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이행하는 방안은 사회주의 단계에서 협동조합적 소유인 농업협동조합과 전 인민적 소유인 국영농장을 통합할 것인가, 아니면 농업협동조합을 확대 발전시켜 농업협동조합과 국영농장을 공존, 융합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쟁점은 불분할폰드의 성격과 차액지대의 분배 문제였다.

최윤규와 현호범은 통합론의 입장에서 농업협동조합의 불분할폰드(12)가 전 인민적 소유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으므로 공산주의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농업협동조합이 국영농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이 국영농장으로 전환되면 농민들의 차액지대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회주의는 두 가지 소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가적 소유가 훨씬 선진적이고 우월하므로 농업협동조합을 단기간에 중국의 인민공사와 같은 국영농장으로 전환시켜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sup>13)</sup>

융합론에 선 홍달선은 농업협동조합에서 불분할폰드의 증대 자체가 협동조합적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업협동조합이 국영농장으로 통합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하면서 전 인민적 소유 속에 융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12)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조합원들의 생산수단을 무상으로 통합하고 난 나머지 생산수단을 출자금의 방식으로 유지하여 조합탈퇴 시 반환하였으나, 북한에서는 이를 대가를 주고 구입하였다. 그러므로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출자금 반환은 없었고, 북한 협동조합의 재산은 거의 전부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분할해 줄 수 없는” ‘불분할폰드’로 구성되었다(외국문출판사 편,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잠정)』,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주요문헌집』, 평양: 외국문출판사, 1959, 97쪽,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 제45조 참조).

13) 『농업협동조합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이행방도에 관한 토론회』, 『경제연구』 1959년 2호, 100~101쪽; 최윤규·현호범, 『우리나라에서 농업협동조합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이행방도에 대하여』, 『경제연구』 1959년 3호, 82~89쪽.

제시하였다.<sup>14)</sup>

그는 아직은 농민들이 차액지대에 대한 관심이 많고 농민이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은 공산주의 단계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금은 차액지대를 분배하면서 ‘군연맹’을 통해 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15)</sup>

한편, 김정국은 일시에 전면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을 국영농장으로 전환시킬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이행의 가능성도 타산해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안광즙은 언젠가는 노동의 질과 양에 의해서만 분배를 하는 원칙이 철저히 관철될 것이고, 그때는 차액지대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통합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sup>16)</sup>

이 문제는 곧 협동조합적 소유를 과도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적 소유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장기 지속성을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또한 농업협동조합의 존재가 과연 높은 생산력 발전을 담보해야 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인가, 부정적인 요소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통합론에서는 협동조합적 소유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농업협동조합을 국영농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레아만 국가의 계획 속에 농업의 생산력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융합론에서는 공업과 농업의 차이로 인해 농업에서는 협동조합적 소

---

14) 홍달선,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줄기찬 지향」, 『력사연구』 1959년 1호, 75~76쪽; 홍달선, 「협동적 소유의 확대 강화는 새 기준규약의 기본적 요구」, 『근로자』 1959년 1호, 49~53쪽; 「농업협동조합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이행방도에 관한 토론회」, 『경제연구』 1959년 2호, 100~101쪽.

15) 홍달선의 ‘군연맹’ 구상과 협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해서는 서동만, 2005, 『북조선 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904~907쪽 참조.

16) 「농업협동조합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이행방도에 관한 토론회」, 『경제연구』 1959년 2호, 100~101쪽.

유를 유지해야 하지만, 불분할폰드를 증대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전 인민적 소유로 접근시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생산력 발전 문제는 농민에 대한 차액지대의 분배와 ‘군연맹’과 같은 농업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통해 충분히 추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다음으로 생산력과 생산관계 논쟁은 1959년 봄부터 촉발되어 1959년~1960년을 풍미한 논쟁이었다.<sup>17)</sup> 쟁점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응, 북한에서 사회주의 생산관계 발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낙후한 생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등이었다.

리능훈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수립은 반제반봉건혁명 이후 제기된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적응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빠르게 달성된 것은 단지 생산력의 수준 만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당의 지도력과 대중의 의식적인 투쟁이 생산관계의 개조를 추동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능훈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아직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낙후한 농업생산력 간의 모순이므로 선진적 생산관계에 의하여 급진적으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리능훈은 그 방안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규모와 범위의 확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의 추진을 주장하였다.<sup>18)</sup>

반면, 정균정은 북한의 생산력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경제적 협조와 국제적인 분업을 기초로 하여 높은 수준으로 구축되었다고

17) 「“현 시기 우리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에 대한 학술토론회」, 『경제연구』 1960년 2호, 68~69쪽; 과학원 경제연구소 인민경제연구실 편, 1960, 『우리나라 인민경제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작용』, 평양: 과학원출판사.

18) 리능훈, 「현 시기 우리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증법」, 『력사과학』 1960년 3호, 45~48쪽; 「“현 시기 우리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에 대한 학술토론회」, 『경제연구』 1960년 2호, 68~69쪽.

주장하였다. 높은 수준의 생산력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조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수준을 앞서갈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정균정은 특히 생산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정책 실천 과정에서 모험주의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생산력의 발전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채 생산관계를 개조하려는 편향을 노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sup>19)</sup>

정균정은 농업협동조합의 통합 사업과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에 의해 협동적 소유가 전 인민적 소유로 확대되는 주목할 만한 변화 발전과정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모순은 생산력의 새로운 요구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생산관계의 개별적·보수적인 측면과의 모순이므로 이를 제거하여 생산력의 더욱 급속한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토론에서는 현 시기의 주요모순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낮은 생산력 사이의 모순이라는 리능훈, 김하중, 리석심, 백재욱, 김상학, 홍승운, 김후선, 채희정의 주장과 정균정을 비롯해 안광준, 최동혁, 박영근, 마춘영, 황금주의 주요모순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생산력과 남아지는 생산관계의 개별적 측면 간의 모순이라는 입장이 대립했다. 당시 과학원 사회과학부문위원회의 위원이었던 김후선, 채희정은 전자의 입장을 지지했다.<sup>20)</sup> 당의 정책 역시 전자의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

19) 정균정, 「현 시기 우리나라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경제연구』 1959년 3호, 76~80쪽; 「“현 시기 우리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에 대한 학술토론회」, 『경제연구』 1960년 2호, 68~69쪽

20) 「“현 시기 우리나라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관계에 대한 학술토론회」, 『경제연구』 1960년 2호, 69쪽; 김후선, 1959,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우리 나라의 인민민주주의 혁명과 모순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철학논문집』, 평양: 과학원출판사, 15~18쪽 참조. 당시 사회과학부문위원회의 위원은 김한주, 채희정, 김시중, 황장엽, 김후선이었다. 1959년 꾸러진 과학원

이 논쟁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낙후한 생산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단계를 선포한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성을 해명함으로써, 이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논쟁을 일단락 짓는 것이었다.<sup>21)</sup> 둘째는 낙후한 생산력을 가진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있었다.

농업협동화 이후 벌어진 두 논쟁은 낙후한 생산력과 낙후한 농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단계를 선언하고 사회주의 공업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한 북한의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준다. 두 논쟁의 핵심이었던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접근시키는 문제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 설정 문제, 낙후한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이후 북한 정권이 취한 조치를 통해 농업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 2. 공동 소유로의 이행과 기술·문화혁명 추진

사회주의 공업국가 건설의 가치를 높이 든 북한정권이 농업협동화 이후 제일 먼저 추진한 조치는 농업협동조합의 통합이었다. 1958년 10월 북한정권은 부락 단위로 구성되었던 협동조합을 '리' 단위로 통합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리 안에 있던 2~3개의 농업협동조합은 1개로 통합되었고, 농업협동조합의 평균 규모는 80호에서 300호로, 경지 면적은 130정보에서 500정보(150만 평)로 늘어났다.<sup>22)</sup>

- 
- 3기 부문위원회의 명단은 강호제, 2007, 『북한 과학기술형성사 I』, 173쪽 참조.
- 21) 실제로 이 논쟁은 이후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의해서 낮은 생산력을 추동해야 한다는 생산관계 우선론과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생산력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산력 우선론으로 발전하였다.
- 22) 리복희 편, 1985,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와 지원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33쪽; 김일남 저, 김세국·김용언 공저, 1991,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7쪽. 1958년 이후 북한농업협동조합 조직 개편의 특징과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표 1】 농업협동조합의 규모별 구성

	1954년	1955년	1956년	1957년	1958년
조합수 총계	10,098	12,132	15,825	16,032	3,843
50호까지	8,558	8,912	8,873	7,034	66
51~100호	1,323	2,839	5,602	6,763	325
101~200호	222	354	1,247	2,064	1,074
201~300호	-	20	103	137	984
301~400호	-	-	-	34	641
401~600호	-	-	-	-	588
601~1000호	-	-	-	-	157
1000호 이상	-	-	-	-	3

※ 출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64~65쪽.

이와 함께 농업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농촌소비조합 상점, 진료소와 가공공업 등 종래에 부락 및 리 단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일체의 조직들이 리협동조합에 흡수되었다. 이렇게 리협동조합이 리의 경제, 문화, 보건 활동을 모두 포괄하게 됨에 따라 리인민위원장이 농업협동조합 관리위원장을 겸임하였다.<sup>23)</sup>

기존의 부락 단위 협동조합은 신용, 생산, 유통, 분배, 소비사업을 중

김성보, 2002, 「1960년대 초반 북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체계의 성립과 그 역사적 맥락」, 『충북사학』 13을 참조할 것.

23) 홍달선, 「농업협동조합의 통합은 우리 사회 발전의 성숙된 요구」, 『근로자』 1958년 11호, 18~22쪽. 홍달선은 이 조직을 협동화가 완성된 후 생산관계 발전의 측면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가진 조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당시의 모순이 발전하고 있는 생산력과 보수적인 생산관계의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각종 경제 조직들이 ‘리’ 단위에서 단일한 소유관계로 전환한 것은 생산력 발전에 부응하는 생산관계를 정립하여 생산력 발전의 길을 터놓은 조치였을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이 제3형태를 벗어나 전 인민적 소유로 접근하게 된 “거보의 전진”이라는 것이다(홍달선, 「우리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와 기술, 문화혁명」, 『근로자』 1960년 6호, 38쪽).

합적으로 추진하고, 경지 정리와 기계화를 단행하며 계획적 농업을 추진하기에는 협소한 규모였다. 리 단위 1개 협동조합으로의 통합 조치를 통해 농업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농업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위를 확보하였다.<sup>24)</sup>

이와 함께 1959년 1월 열린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는 농업협동화를 완료하고 사회주의 단계를 맞이하는 농업 발전의 조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의 기준규약(잠정)을 채택하였다.<sup>25)</sup> 새 기준규약에서는 개인 부업 경리의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고, 전 인민적 요소를 대폭 늘릴 것을 결정하였다.

규약에서는 조합원이 소유했던 토지와 모든 생산수단을 조합의 공동소유로 선포함으로써 개인 소유를 완전히 소멸시켰다. 개인 부업의 대상이 되는 텃밭과 약초 재배, 동물 사육도 최소한으로 축소하였다.<sup>26)</sup> 반면에 조합의 공동 재산을 증대하여 개인적인 소비 수요를 조합 공동 재산에서 지출하고, 학교 및 구락부, 민주선전실 등 교육과 문화, 후생활동도 조합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sup>27)</sup> 공동주택과 공동식당 등을 운영하여 개인 생활과 소비가 집단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4) 이때의 리는 일제하, 해방후의 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확대된 리”였다. 북한정권은 1952년 일제시기의 군·면·리 지배체제를 군·리 체제로 교체하면서 면제를 폐지하고, 일제가 확대시킨 군을 축소하였으며, 리는 일제시기보다 확대하여 군과 리를 직결시켰다(김성보, 2002, 「1960년대 초반 북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체계의 성립과 그 역사적 맥락」, 『충북사학』 13, 82~83쪽).

25)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에 대한 박정애 동지의 보고」, 『로동신문』 1959년 1월 10일자 참조.

26) 김승준, 『우리나라에서 농촌문제 해결의 역사적 경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84쪽.

27) 김일은 전국협동조합대회가 열린 1959년 1월 9일 현재, 농촌에 8천여개의 학교건물, 6,400여개의 유치원과 탁아소, 9천개소의 민주선전실 등이 건설되었다고 보고하였다(김일,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내각부수상 김일 동지의 토론」, 『로동신문』 1959년 1월 9일자).

새 기준규약은 협동조합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로의 이행 방안에 대해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인정하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유지하도록 하였다.<sup>28)</sup>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개인 소유를 소멸하고, 부업과 협동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가 개인 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였다.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이 개인별 차액지대가 아니라 공동 소유와 공동 재산의 발전으로 집중되도록 유도하고자 한 조치였다.

이는 융합론의 입장을 수용하여 공업과 농업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협동조합적 소유형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개인소유자들의 연합체라는 협동조합적 소유가 가진 한계와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에 대한 통합론의 우려를 반영하여 전 인민적 소유의 내용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또한 북한정권은 농촌에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단행하여 협동조합적 소유를 공고히 하는 한편, 현대적 기술을 가진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으로 변화시키는 과업을 부여하였다.<sup>29)</sup> 생산관계의 개조와 더불어 낙후한 농업생산력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기술 개조와 의식 개조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협동화 이후 북한 농업협동조합 발전 방향에 교본이 된 것은 1923년 1월 레닌이 저술한 「협동조합에 관하여」였다. 사회주의 단계에서 그가 특히 강조한 것은 농민에 대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이었다. 레닌은 “문화화된 협동조합원들의 체계가 곧 사회주의 체계”라고 규정하고, 문화혁명을 통해 농민들의 의식 수준을 고양하는 한편, 그들의 심리 전체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는 물질적 토대로서 기술의 발전과 기계화, 전기화를 추

---

28) V. I. 레닌 외 지음, 윤수중 편·해설, 1991, 「협동조합에 관하여」, 『농업협동화론-레닌과 부하린의 논의를 중심으로』, 새길, 188쪽.

29) 김일성, 1981,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급후 발전에 대하여-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13(1959.1~1959.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35쪽.

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sup>30)</sup> 사회주의 건설에서 소련의 모델을 수용하고자 한 북한은 레닌의 「협동조합에 관하여」를 ‘교본’으로 삼아 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하였다.<sup>31)</sup>

북한정권은 기술혁명을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를 통해 낙후한 생산력을 극복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선차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과업으로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농민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간주하였다.<sup>32)</sup> 농민의 사상의식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생산하는가에 따라 개변”<sup>33)</sup>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기계화의 추진에 따라 농촌에 보급된 트랙터 대수는 1956년 1,542대에서 1960년 6,313대로 늘어났고, 트랙터에 의한 총 기경면적도 1956년의 37만 정보에서 114만 5천 정보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총 경지 중 트랙터에 의한 기경을 또한 1956년 10.5%에서 1960년 36.0%로 늘어났다. 수리화에 의해 관개시설 및 관개면적도 늘어나서 저수지는 1956년 897개에서 1960년 1,234개로 증가하였다. 양수장은 3,862개에서 7,797개로, 보는 5,325개에서 10,933개로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관개면적도 2배 이상

- 
- 30) V. I. 레닌의 지음, 윤수중 편·해설, 1991, 『농업협동화론-레닌과 부하린의 논의를 중심으로』, 새길, 182~192쪽; 김창진, 2008,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혁명 전후 러시아의 국가와 협동조합 1905~1930」, 한울, 89~96쪽 참조.
- 31) 북한의 학자들은 레닌의 이 문건에 대해 공산주의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 농업을 어떻게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 문건으로 평가하였다(리진용, 「협동조합에 관하여」, 『경제연구』 1964년 4호, 49쪽 참조).
- 32) 김일성, 1981,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3(1959.1~1959.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62쪽; 오성묵, 「완충기 당 농업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1960년 1호, 30쪽; 최상벽, 「농업기계화의 촉진은 현 시기 농촌 경리 발전의 결정적 고리」, 『근로자』 1960년 7호, 13쪽.
- 33) 김승준, 「쌍마 전진은 농업에 대한 공업의 전면적인 방조를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 1960년 6호, 23쪽.

늘어났다.<sup>34)</sup> 북한정권은 기술혁명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급속히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한편 문화혁명은 농민들의 지식수준을 초중 졸업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농민들 속에서 낡은 사상잔재를 퇴치하여 그들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을 과업으로 하였다.<sup>35)</sup> 실제로 북한정권이 표방한 바와 같이 문화혁명을 추진하면서 농촌 학교의 학교 수와 학생 수, 특히 중학교의 학교 수와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표 2】 농촌 부문 학교 및 학생 수의 증가 비율(%)

		1953	1958	1963
총계	학교수	100	150	223
	학생수	100	149	175
인민학교	학교수	100	114	147
	학생수	100	112	90*
중학교	학교수	100	250	334
	학생수	100	351	464
농업 부문 중등 기술 및 전문학교	학교수	1	8	84
	학생수	1	7	64
농업 부문 고등 기술 및 전문학교	학교수	-	1	35
	학생수	-	1	55
농업 부문 대학	학교수	1	2	6
	학생수	1	3.6	16

※ 출전 : 김승준, 1965, 『우리나라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역사적 경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35쪽.

※ 비고 : 비율로 표기되어 있어 농촌에 설립된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다. 1963년 인민학교 학생 수의 감소는 전쟁으로 인한 학령기 아동 수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3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1961, 82~83쪽.

35) 홍달선, 「우리나라 농촌에서 협동화와 기술, 문화혁명」, 『근로자』 1960년 6호, 42쪽.

북한정권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는 승리하였지만 농민은 장구한 세월 동안 착취관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사상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sup>36)</sup> 북한정권은 문화혁명을 통해 농민에 대한 교양과 집단생활을 강화함으로써 농민생활에서 이기주의와 소소유자적 근성이 청산되고,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화되며 집단주의적 생활양식이 급속히 배양될 것으로 기대하였다.<sup>37)</sup>

## II.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추진 배경과 내용

### 1. 농업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의 괴리

북한정권은 농업협동화 이후 기술·문화혁명을 통해 농업생산력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농민들의 집단적인 생활양식이 급속히 배양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1958년을 정점으로 북한의 농업생산력은 오히려 하강하거나 정체 상태에 머물렀고,<sup>38)</sup> 농민들은 사회

---

36) 김일성, 1981,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적 농업협동화의 승리와 농촌경리의 급후 발전에 대하여-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에서 한 보고』, 『김일성 저작집 13(1959.1~1959.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3쪽.

37) 최상준, 『우리나라 농촌경리 발전의 새로운 단계』, 『경제연구』 1959년 1호, 56, 58쪽; 최상백, 『농업기계화의 축진은 현 시기 농촌 경리 발전의 결정적 고리』, 『근로자』 1960년 6호, 13쪽.

38) 북한은 알곡수확고를 1958년 370만 톤, 1959년 340만 톤, 1960년 380.3만 톤, 1961년 483만 톤, 1962년 500만 톤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주철은 북한정권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협동조합 농가 1호당 알곡 분배뭇으로 생산증가량을 계산하더라도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1957년 300.8만 톤, 1958년 324만 톤, 1959년 304만 톤, 1960년 320~330만톤 정도에 불과하다고 추산하였다(이주철, 2008, 『1950년대 북한 농업

주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보다 ‘일탈행위’를 일삼았다.

‘왜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에는 농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고조되는 데 반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는 농민들의 기세가 올라가지 못하는가?’ 이것이 바로 본격적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시기에 북한정권이 봉착한 고민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급속한 공업 생산력의 발전과 도시 노동자들의 혁명 열기와 대조되었다.

농민들의 ‘일탈행위’는 고리대를 하는 행위, 식량 증산을 강조한 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품 작물을 심는 행위, 생산반이 아니라 씨클과 체육대회 등에 청년들의 노력을 낭비하는 행위, 불필요한 작업반을 늘이는 행위, 실정에 맞지 않는 대형 농기구만 늘이고 소형농기구의 활용과 수리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행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주먹구구로 생산하는 행위, 각 부문 간에 상호 연계 없이 무계획하게 생산하는 행위, 비생산적 노동에 과다하게 많은 노력일을 평가하는 행위 등 종류도 다양했다.<sup>39)</sup> 사회주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문제일 수 있었지만 북한정권은 이를 ‘일탈행위’로 지목하고, 예의 주시하였다.

북한정권은 농촌에서 혁명을 계속하지 않고 중단하는 데서 문제를 찾았다. 농업협동화에서 멈추지 않고 사회주의로 농민들을 적극적으로 추동해야만 농민들이 사회주의제도가 우월하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고, 농민들의 혁명적 열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40)</sup> 이른바 계속혁명론이었다.<sup>41)</sup>

---

협동화의 곡물 생산성과 연구』, 『한국사학보』 31, 221-226쪽.

39) 최윤수, 농촌신용협동조합 조직 지도에서의 몇가지 문제, 『근로자』, 1958년 제2호, 66쪽; 오성목, 「완충기 당 농업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1960년 제1호, 28-32쪽.

40) 김일성, 1982,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7(1963.1~1963.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11쪽.

41) 김일성, 1982,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18(1964.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99쪽.

한편, 1961년 9월 11일~17일 열린 제4차 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계획이 채택되었다.<sup>42)</sup> 제1차 5개년계획이 2년 반이나 앞서 달성된 사실은 북한정권에게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불러일으켰다.<sup>43)</sup> 제1차 5개년계획이 사회주의 공업-농업국가에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기간이었다면, 인민경제발전7개년 계획은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공업국가로 이행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다. 사회주의 공업국가의 실현을 통해 북한정권이 추구한 목표는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는 것이었다.

북한정권은 자립경제를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 발로 걸어 나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역량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경제”로 정의하였다.<sup>44)</sup> 이렇듯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력갱생의 논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자립적 민족경제는 경제운영의 궁극적인 목표일 뿐 경제의 사회적 성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제가 자립적 민족경제인가?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단계의 경제가 자립적 민족경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5)</sup>

사회주의 건설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북한정권은 자립적 공업체제와 농업체제를 동시에 세우고자 하였다.<sup>46)</sup> 이때 농업과 공업의 생산력 격차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저해

42) 김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에 대하여」, 『로동신문』 1961년 9월 17일자.

43) 연평균 36.5%에 달하는 공업의 급속한 성장과 비날론, 염화비닐, 무연탄가스화, 합성고무 등 독자적인 기술개발의 성과, 알곡생산량의 눈에 띄는 증가는 북한정권의 자신감을 뒷받침하는 물질기술적인 근거로 작용했다(강호제, 2007, 『북한 과학 기술 형성사 I』, 선인, 363~364쪽 참조).

44) 홍승은, 1987, 『자립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5~48쪽 참조.

45) 위의 책, 49~59쪽 ; 중앙정보부, 1977, 『북괴간부 및 당원학습자료』, 90쪽 참조.

46) 김일성, 1981,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김일성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로 지목되었다. 농촌에서 기계화를 통한 기술혁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공업을 따라잡고,47) 곡물 생산량을 600만 톤으로 증산하여 식량문제를 중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북한정권의 목표였다. 그러나 인민경제7개년계획은 조기에 난관에 봉착했다.

문제의 원인은 첫째,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늘림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외연적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했고,48) 둘째, 한미일 삼각방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국방-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해 자원부족 문제가 심화되었으며, 셋째, 협소한 국내시장이 경제성장을 추동하지 못하였고,49) 넷째, 소련과의 대외관계가 악화되면서 시설재 도입이 급감하였기 때문이었다.50) 또한 정책과 계획이 현실과 유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51) 정책방향이 전환되거나 계획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책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의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김일성 중심의 북한정권에

---

저작집 15(1961.1~1961.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14쪽.

47) 위의 글, 223쪽.

48) 이태섭, 앞의 논문: 변학문, 앞의 논문 참조.

49) Erik van Ree, 1989,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5 No. 1, London: F. Cass, p. 62; 박후진, 2013, 「북한 경제의 재구성」, 『현대북한연구』 16-3, 230쪽.

50) 이종석, 앞의 책, 152~154쪽; 김연철, 앞의 책, 256~261쪽; 이태섭, 앞의 책, 283~316쪽; 서동만, 앞의 책, 842~845쪽; 김보미, 2013, 『북한의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52~253쪽. 이태섭, 이종석, 서동만, 김보미가 소련과의 관계악화와 원조감소가 가져온 자원제약 자체에 주목하였다면, 김연철은 자원제약이 가져온 계획경제의 모순 심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51) 1959년에도 북한은 500만 톤이라는 실현불가능한 곡물 생산 목표를 설정하였다. 하지만 계획 달성은 실패하였고 주변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였다(박종효,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II』, 선인, 182쪽)

는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었다.<sup>52)</sup> 북한정권은 오히려 계획부진의 원인을 소련과 수정주의자들의 반혁명 행위에 돌리고, 현실의 제약성을 넘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1964년, 인민경제발전7개년계획은 전반기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경공업과 농업 생산에 박차를 가해 인민 경제생활 향상을 기하는 한편, 공업과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기하고자 했던 전반기의 목표는 달성되지 못하였다. 농업생산력은 여전히 정체상태였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농업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의 괴리를 극복하고, 계속혁명론을 통해 농민을 추동하여 농업의 생산력 수준을 공업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상과 자립적 민족경제를 실현하고자 한 북한정권의 의지의 표현이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이 창출한 모델이었다.

## 2. 사상 · 기술 · 문화혁명의 추진

북한정권은 그동안 농민이 사회주의 건설에 소극적인 이유가 물질기술적인 토대와 생활적인 토대가 낙후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지도와 농업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이 정체되자, 그동안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행태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먼저 문제로 지목된 것은 과거 지주 및 부농들의 준동과 그에 대한 농민들의 경각심 부족이었다. 김일성은 농민들이 과거의 지주를 유지로

---

52) 1956년의 '8월 종파사건'으로 인한 중앙 정치세력의 숙청과 1958~1959년의 대대적인 지방 차원의 숙청 작업은 당 중앙의 결정에 선불리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1950년대 중앙과 지방의 숙청 작업에 대해서는 서동만, 앞의 책; 윤경섭, 2008,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대접하고 지원하는 행위, 심지어 지주가 협동조합의 간부로까지 활동하는 행위, 당 조직에서 지주와 부농의 적대 행동을 관대하게 처리한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였다.<sup>53)</sup> 관대하게 대해야 할 것은 “착취계급 성분의 적대분자들인 것이 아니라 근로 성분”<sup>54)</sup>이라는 김일성의 언급은 농촌에서 사상투쟁과 계급투쟁이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빈농과 중농에 대한 시각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빈농은 토지 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주축이었고, 빈농을 물질적으로 강화하여 중농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였다. 그러나 이제는 빈농과 중농이 오랫동안 가축과 농기구, 땅을 소유하면서 가지게 된 소자산계급으로서의 계급적 속성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sup>55)</sup> 북한정권의 농민관도 변화하고 있었다.

북한정권은 변화된 농민관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농촌 사업과 농업 발전에 대한 전망을 밝히고, 그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는 사회주의 농업이 가야 할 방향을 농촌에 수립된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하게 하는 한편,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키고, 점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및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것으로 설정하였다.<sup>56)</sup> 무계급 사회와 전 인민적 소유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를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sup>57)</sup>

---

53) 김일성, 「당 조직사업과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16(1962.1~1962.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61~170쪽. 1962년에는 『지주는 농민의 약독한 착취자』라는 교양서적이 발행되기도 하였다(정영일, 1962, 『지주는 농민의 약독한 착취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4) 위의 글, 169~170쪽.

55) 리양훈, 「농촌에서의 사상혁명」, 『근로자』 1964년 6호, 4쪽; 변학문, 2015, 『북한의 기술혁명론: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서울대학교 과학사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124쪽 참조.

56) 김일성, 1982,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김일성 저작집 18(1964.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쪽.

57)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하여(1986.12.30.)」,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실현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언급된 농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은 세 가지였다. 첫째, 사상혁명을 중심으로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한다. 둘째, 농민에 대한 노동계급의 지도와 농업에 대한 공업의 도움, 농촌에 대한 도시의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선진적인 기업 관리 수준에 접근시키고,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킨다는 것이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된 원칙이 농촌에서의 철저한 사상혁명이었다는 사실은 농업협동화 이후 북한정권의 농민관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그동안 북한정권은 농민들의 이기주의적인 태도와 소소유자적인 근성, 분산성과 동요성, 보수성을 착취사회에서 남겨진 물질적인 토대와 생활적인 습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소자산계급으로서의 속성 자체가 그러한 특성을 재생산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농촌에서 사상혁명이 철저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였다.

따라서 사상혁명의 내용으로는 첫째, 공산주의 교양과 집단주의 교양이 강조되었다. 착취제도를 반대하고, 뿌리 깊은 소소유자 의식과 이기주의 사상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로는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이 강조되었다. 이를 통해 일하지 않고 놀고먹는 것을 선호하는 농민의 정신을 개조하고자 하였다. 셋째는 씨족 관념과 문벌주의, 소극성과 보수주의를 퇴치하는 데 강조점을 두었다.<sup>58)</sup> 이 모든 것은 결국 농민들의 사상을 착취계급의 것에서 노동계급의 것으로 전환시키는 데 주안점이 있었다.

사상혁명이 강조된 것은 또한 1962년 이후 북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대한 논쟁이 생산관계 우선론으로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산

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45~450쪽.

58) 김일성, 1982,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18(1964. 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18~220쪽 참조.

관계 우선론의 내용은 사회주의 단계에서는 생산력 발전에서 생산관계가 미치는 반작용이 강화되며, 그것은 특히 근로 대중의 정치적 사상의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sup>59)</sup> 이는 북한의 경제운영에서 생산력 발전의 문제가 독자적인 경제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가 우선적으로 작동되는 가운데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사상혁명과 더불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동시에 수행되어야 했다. 기술혁명은 농민들도 노동자들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적 기초였다. 농업노동은 고된 노동으로서 낙후한 농기구를 이용하며 자연제약적인 조건으로 인해 계절적이고 분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기술혁명은 농업이 자연적인 제약에서 해방되어 공업과 같이 일상적이고 정규적인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되었다. 수리화, 기계화, 전기화, 화학화가 그 방향이었다.<sup>60)</sup>

관개공사를 통한 수리화는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었고, 기계화는 현대적 기계와 기술을 갖추어 농민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도록 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 간주되었다. 전기화는 수리화와 기계화를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자 농민들이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었고, 화학화는 농작물의 단위당 수확고를 높임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강조되었다.

한편, 문화혁명의 목적은 농민을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sup>61)</sup>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있었다. 농민을 공산주의적인 인간형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지식과 교양이 제공되어야 했다. 북한정권은 농민들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우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성인교육과 기술교육을 강조하였다.<sup>62)</sup> 그 뿐만 아니라 학교로 포괄할 수 없는 농민들

59) 변봉석, 「생산력 발전에서의 사상 의식의 역할」, 『철학연구』 1962년 2호, 28~29쪽.

60) 위의 책, 208~212쪽.

61) 위의 글, 10쪽.

을 일상적으로 교양하기 위해 리마다 민주선전실을 빠짐없이 설치하고 농민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촌은 도시보다 문화적으로 뒤떨어지고, 농민은 계급적으로 복잡하며 계절적인 제약성으로 인해 분산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문화혁명을 단행하기 쉽지 않은 공간이었다. 이에 북한정권은 각종 문화시설을 군에 집결하여 농민에 대한 일상적인 문화교양을 강화하도록 하였다.<sup>63)</sup>

또한 북한정권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계급진지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그 계급진지는 이전처럼 빈농 세력을 의미하지 않았다.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급의 식별 아니라 혁명성이 강하고, 기술문화 수준이 높은 주체가 혁명을 이끌어 가야만 하였다. 농촌혁명을 이끌어 갈 주체로서는 혁명가 유가족들과 피살자 가족, 노동자, 제대 군인과 청장년이 지목되었다.<sup>64)</sup>

혁명가 유가족들과 피살자 가족들은 치열한 계급투쟁의 역사를 재연하고 계급교양을 단행할 수 있는 적임자였다. 이에 도시에 있는 이들을 돌려보내 농촌의 핵심으로 양성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동자계급은 농민계급보다 혁명적이고 조직력이 강하며 기술문화 수준도 높은 존재이므로 농촌에 들어가면 가족주의와 문벌주의, 개인 이기주의 등 농민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척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군대 생활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단련된 제대 군인과 청장년들도 농촌에 적극 배치되어야 할 존재였다.

62) 김일성, 1982,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18(1964.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14·217쪽.

63) 김송기, 「농촌에서의 문화혁명」, 『근로자』, 1964년 6호, 14쪽.

64) 김일성, 1982,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7(1963.1~1963.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40~543쪽; 김일성, 1982, 「올해 사업방향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8(1964.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05쪽.

요컨대 북한정권은 사회주의 농촌체제를 통해 혁명이 유가족, 피살자 가족들과 노동자를 농촌에 적극 배치하여 계급진지를 강화하고 농민의 정치적 사상의식을 강화하는 가운데 사상혁명·기술혁명·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농민을 ‘사회주의 근로자’로 만드는 것, 전 사회의 노동계급화를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고 자립경제를 달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일차적인 목표였다.

### 3. 경제관리 방법과 소유관계의 전환

사회주의 농촌체제에서 사상·기술·문화혁명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가와 노동계급의 지원 속에서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공업의 기업 관리 수준에 접근시키고,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가깝게 만드는 것이었다.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전까지는 협동조합적 소유와 관리형태를 유지하고자 했던 융합론의 주장이 힘을 잃고,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 조기에 협동조합을 국영농장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던 통합론의 주장이 관철되기 시작한 것이다.<sup>65)</sup>

지금까지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소유형태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다면, 사회주의 농촌체제에서는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농촌의 소유형태뿐 아니라 관리방법의 낙후성이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낳는다고 보았다.<sup>66)</sup> 1959년 1월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을 개편하여 협동조합적 소유를 공동 소유로 개편하였다면, 사회주의 농촌체제에서는 협동조합의 소유와 관리방식을 전 인민적인 것으로 전환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65) 2장 1절의 협동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이행하는 방안에 관한 논쟁 참조.

66) 최중삼,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소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창조적 발전」, 『경제연구』 1964년 2호, 5쪽.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는 농업협동화 이후 북한정권이 주력해 온 오래된 숙제였다. 농업협동조합이 ‘리’ 단위로 통합된 후, 리농업협동조합은 행정단위이자, 생산단위, 생활단위로서의 일체성을 갖게 되었다. 리인민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또한 리와 군의 행정 뿐 아니라 경제관리의 방대한 영역을 지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sup>67)</sup>

통합 이전에도 인민위원회가 리의 모든 부문을 총괄했지만, 이전과 달리 감당해야 할 영역이 넓어졌고 지도의 내용 또한 구체화, 전문화되어야만 했다. 인민위원회의 관리 인원을 최소화하고 생산지도에 집중하는 방안도 강구되었으나 일상적인 행정 업무들이 과다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이에 1961년 북한정권은 농업지도 체계의 전환을 꾀하였다. 군인민위원회는 일상적인 행정지도를 담당하도록 하고, 농업생산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군인민위원회의 농업부서를 분리하여 군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한 것이다. 1962년 초부터 군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농업지도의 거점으로 설정하고 계획부, 생산지도부, 농기계부, 기술부, 자재보장부, 부기지도부 등을 두어 리협동조합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계획, 자재공급 및 재정활동에 대한 지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하였다.

전환의 핵심은 군을 거점으로 하여 군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조직하고,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가 리협동조합관리위원회를 직접 지도하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는 군당위원회의 지도 속에서 사업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이었다.<sup>68)</sup> 이는 군당을 경제와 행정의 총괄

67) 김일성, 1981,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당면한 몇 가지 과업들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3(1959.1~1959.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83~485쪽; 김일성, 1981, 「새 환경에 맞게 군당 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4(1960.1~196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97~98쪽.

68) 김일성, 1981,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5(1961.1~1961.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463~465쪽. 김일성, 1981, 「군협동조합경영

조직으로 공식화하여 군농업협동조합경영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에서 대한 국가의 일원적인 통제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관계에서 생산관계의 반작용이 일어나며, 생산관계의 반작용은 상부구조인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요구한다는 정의 속에서<sup>69)</sup>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었다.<sup>70)</sup> 이러한 변화를 통해 협동조합은 국가의 통제 속에 더욱 강하게 편입되었다.

북한정권은 1962년 숙천군에 대한 현지도 과정을 거쳐 1962년 말부터는 군협동조합경영위원회의 명칭을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바꾸고 농업지도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였다.<sup>71)</sup> 군협동조합경영위원회 창설에서는 농업 전담 관리기관의 창설이라는 기구적인 변화가 중심이었다면,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의 변화에서는 농업지도 방식의 변화에 초점이 있었다.

김일성은 집단화된 사회주의 협동조합을 더는 ‘행정적인’ 방법으로 지도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변화의 핵심은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기업적’ 지도를 통해 생산에서 분배에 이르기까지 전일적인 계획을 수행하고, 협동농장을 국영기업체들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협동조합적 소유의 산만함과 미약한 조직성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sup>72)</sup>

김일성은 레닌과 달리 협동조합의 독자성과 장기지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강력한 지도 하에 포섭된 농장화된 협동조합은 농민들의 자율적인 연대 조직이라는 협동조합의 고유한 성격

---

위원회를 내올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5(1961.1~1961.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30~536쪽, 550~551쪽.

69) 변봉석, 「생산력 발전에서의 사상 의식의 역할」, 『철학연구』 1962년 2호, 32쪽.

70) 김영철,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 『근로자』 1963년 6호, 28쪽.

71) 김일성, 1982,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킬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6(1962.1~1962.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15~516쪽.

72) 리명서,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접근 문제」, 『경제연구』 1964년 2호, 15~17쪽.

을 점차 상실해갈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1961년부터 정립되고 있던 농업 지도 체계의 변화를 총정리하고 완성한 결정판이었다. 리협동조합은 리협동농장으로 개편되었고, 조직상으로는 리협동농장-리협동농장관리위원회-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도농촌경리위원회-농업위원회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리에는 협동농장과 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있고, 군에는 농업기술자들과 농기계제작소, 농기구공장, 관개관리소 등의 국가기업소와 리협동농장들을 거느린 군협동농장관리위원회가 설립되어 농업지도를 책임지는 한편, 군 단위에서 농업과 공업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sup>73)</sup> 상부기관으로서 도농촌경리위원회는 군협동조합경영위원회를 도와 계획을 세우고 종자 및 자재를 보장하는 기술적 지도를 하고, 농업위원회는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였다.<sup>74)</sup>

농촌 지도기관으로서 군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확인되었다.<sup>75)</sup>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가 각각 농업 경영 부문과 농촌 행정 부문을 직접 집행하되, 군당위원회가 군내의 모든 사업을 종합하고 총괄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사업의 선후를 가리고, 주된 사업에 힘을 집중하는 “키잡이”이자 “참모부”의 역할로서 군당위원회의 위상이 재확인되었다.<sup>76)</sup>

73) 박병목, 「사회주의 농촌에 대한 로동계급의 국가적 지원」, 『근로자』 1964년 6호, 21쪽; 현동관, 「지역적 거점에 관한 과학적 이론과 우리나라 군」, 『경제연구』 1964년 3호, 13쪽; 남인호, 「사회주의 농촌 건설에서 지역적 단위의 의의와 군의 역할」, 『경제연구』 1965년 1호, 24쪽 참조.

74) 김일성, 1982,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18(1964. 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24~226쪽.

75) 1958~1959년의 지방 숙청 작업에서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된 사안 중의 하나가 인민위원회, 즉 지방정권 기관의 독자성을 강조한 행위였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는 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던 것 같다(『로동신문』 1959년 7월 26일자; 『로동신문』 1959년 8월 7일자. 참조).

76) 김일성, 1982,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18(1964.

소유관계에서도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다. 통합 후 리협동조합은 평균 300호의 농호와 500여 정보(150만 평)의 농경지를 가진 집단화된 협동조합이었다. 김일성은 집단화된 협동조합을 1962년부터 ‘협동조합’이 아니라 ‘협동농장’으로 명명하기 시작하였다.<sup>77)</sup>

협동조합적 소유와 전 인민적 소유의 차이를 소멸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sup>78)</sup> 협동조합은 트랙터와 자동차와 같이 공업의 물질기술적인 수단을 통해 노동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조직이자 국가의 지도적 역할이 관철되는 ‘협동농장’으로 변모해갔다. 협동농장에서는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농업생산을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sup>79)</sup> 국영기업체의 농업생산에 대한 영향력도 강화되었다.<sup>80)</sup>

결국 협동조합의 협동농장화, 기업적 관리방식의 관철을 통해 도시와 농촌, 농업과 공업의 차이를 없애는 것, 협동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이차적인 목표였던 것이다.

---

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35~237쪽.

77) 김일성이 ‘협동농장’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평남도 내 당 및 농촌경리부문 일군협의회에서 한 연설에서부터였다[김일성, 1982,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킬 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6(1962.1~1962.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515쪽].

78) 리명서,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접근 문제」, 『경제연구』 1964년 2호, 11쪽; 김철제, 「두 소유의 유기적 결합은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에로의 전환의 가장 정확한 길」, 『경제연구』 1965년 2호, 10쪽.

79) 윤편성, 「농촌문제의 해결과 공업, 농업 간의 균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근로자』 1964년 6호, 28쪽. 만일 현대적인 농기계와 자동차를 상업적 유통망을 통해 구입한다면 공업과 농업, 노동자와 농민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므로 공업의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강조되었다(김철식, 「농촌문제 해결에서 농업에 대한 사회주의 공업의 적극적 방조」, 『경제연구』 1964년 2호, 23~24쪽)

80) 최중삼,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는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 소멸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이론의 창조적 발전」, 『경제연구』 1964년 2호, 7쪽; 안광준, 「협동농장들의 발전과 농민들의 생활에 대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의 책임성」, 『경제연구』 1965년 1호, 12쪽.

## 맺음말

지금까지 1958년 8월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이후 1964년 2월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발표되는 시점까지 북한의 농업을 둘러싼 논쟁과 농업정책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북한정권의 농업·농민문제 인식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발전 전망 속에서 사회주의 농촌테제가 추진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북한 농업정책의 흐름을 개관하고,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북한정권은 농업협동화 직후 리 단위로 농업협동조합을 통합하였다. 그 결과 농업협동조합의 평균 규모는 300호, 경지 면적은 500정보로 늘어났다. 농업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농촌소비조합 상점, 진료소와 가공공장등도 리협동조합에 흡수되었다. 리협동조합이 기계화와 계획을 단행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고, 신용·생산·유통·분배·소비를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으로 변모한 것이다.

새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잠정)을 통해 정비된 농업협동조합은 이전의 조합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 조합이었다. 조합원 개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모든 생산수단이 협동조합의 공동 소유가 되었고, 조합원들은 생활과 소비를 모두 집단생활 속에서 함께 하게 되었다. 농민의 낙후한 생산력과 낡은 사상의식을 개조하기 위해 기술혁명과 문화혁명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협동화가 완료된 1958년을 정점으로 농업생산력은 하락하거나 정체하기 시작하였고, 농민들은 일탈행위를 일삼았다. 북한정권은 ‘왜 토지개혁이나 농업협동화를 추진할 때에는 농민들의 혁명적 열기가 고조되는 데 반해 사회주의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부터는 농

민들의 기세가 올라가지 못하는가?’라는 근본적인 고민에 봉착하였다.

정책방향과 계획이 현실과 유리되면서 정책적 문제와 한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 현실에 부합하는 계획의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계속혁명론을 통해 농민을 추동하여 농업생산력 수준을 공업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립적 민족경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낙후한 농업 현실과 사회주의 이상과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북한정권이 창출한 모델이었다.

그동안 북한정권은 농업문제 발생의 원인을 지방주의와 농업지도 체계의 불비, 수정주의자와 반동계급의 준동 등으로 지목해 왔다. 따라서 해법은 지방주의를 청산하고, 당적 지도 체계를 수립하며, 반혁명수정주의자 및 적대적 세력들과 계급투쟁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농촌테제는 현실적인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이상과 자립적 민족경제의 실현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북한정권은 계속혁명론에 근거하여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하였다. 급속한 생산력 발전을 달성하고 있는 노동자와 생산력 정체를 겪고 있는 농민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전 사회의 노동계급화를 단행하고 생산력 발전을 추동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상과 자립적 민족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사회주의 농촌테제의 목표였다.

이를 위해 북한정권은 협동조합을 협동농장으로 변모시켰다. 북한정권은 농업이 가진 특성과 협동조합이 갖는 독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안에서 끌어안기보다는 농업, 농민, 협동조합의 특징을 산만하고 과도기적이며, 불안정한 것으로 보고 공업, 노동자, 국영 시스템을 기준으로 균질화 함으로써 농민의 사상개조와 농업생산력 발전을 달성하고자 하였

다. 협동농장은 협동조합적 소유로 규정되었지만, 실제적인 소유관계와 운영 방식은 국영농장과 다름이 없었다.

협동조합은 국가 소유가 아니므로 국가가 협동조합의 생산과 기술, 계획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첫째, 자발적으로 지도를 요청할 만큼 국가에 대한 농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둘째, 국가가 협동조합적 소유의 자립성과 협동조합 농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즉, 지도와 지원만 할 뿐 소유관계와 분배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협동조합의 물질기술적 수준이 국가의 지도를 요청할 만한 수준으로 높아져야만 한다. 넷째, 강제적이 아닌 동지적인 지도와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sup>81)</sup>

그러나 북한에서는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협동조합이 협동농장으로 변모하고 국가의 지도가 관철되는 과정은 농민에 대한 계급적 불신, 대내외적인 위기, 자립적 민족경제와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강렬한 이상 속에서 진행되었다. 그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의 협동농장화와 운영에서 국가의 강력한 개입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은 농업협동조합 속에서 자율적인 연대를 실현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의 계획에 부응하는 농장원이자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북한 사회주의 농업체제 건설의 로드맵은 완성되었지만, 농업협동조합의 역동성은 조기에 사라지고 말았다.

81) 홍달선, 「농촌경리 지도에서 기업적 방법의 창조적 적용」, 『경제연구』 1963년 1호, 6~8쪽; 홍달선,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기업적 지도방법 적용의 특징」, 『경제연구』 1963년 4호, 13쪽 참조.

## 참고문헌

### 1. 북한자료

- 『경제연구』, 『근로자』, 『력사과학』, 『로동신문』, 『철학연구』, 『철학논문집』  
고정웅, 1995,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승준, 1965, 『우리나라에서의 농촌문제 해결의 역사적 경험』, 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김일남 저, 김세국·김용언 공저, 1991, 『조선농업사 4』, 평양: 농업출판사  
김일성, 1981, 『김일성 저작집 12(1958.1~1958.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1, 『김일성 저작집 13(1959.1~1959.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1, 『김일성 저작집 14(1960.1~1960.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1, 『김일성 저작집 15(1961.1~1961.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2, 『김일성 저작집 16(1962.1~1962.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2, 『김일성 저작집 17(1963.1~1963.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2, 『김일성 저작집 18(1964.1~1964.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82, 『김일성 저작집 19(1965.1~1965.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일성, 1994,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실현을 위하여 2』, 평양: 조선로동당출  
판사  
김정은, 2014, 『사회주의 농촌체제의 가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리복희 편, 1985, 『농촌경리에 대한 지도관리와 지원경험』, 평양: 사회과학  
출판사, 1985  
외국문출판사 편, 1959, 『전국농업협동조합대회 주요문헌집』, 평양: 외국문  
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 1961, 『1946~196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통계집』, 평양: 국립출판사  
홍승은, 1987, 『자립경제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2. 논문과 저서

- Erik van Ree, 1989, “The Limits of Juche: North Korea's Dependence on Soviet Industrial Aid, 1953~76”, *The Journal of communist studies* Vol. 5 No. 1, London: F. Cass
- 강호제, 2007, 『북한 과학기술형성사 I』, 도서출판 선인, 2007
- 김보미, 『북한의 ‘자주로선’의 형성 1953~1966: 비대칭동맹의 특수사례』, 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보, 2000, 『남북한 농업체제의 형성과 기원』, 역사비평사
- 김성보, 2002, 「1960년대 초반 북한 농업협동조합 운영체제의 성립과 그 역사적 맥락」, 『충북사학』 13
- 김연철, 2001,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 김주환, 1989, 「해방후 북한의 인민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해방전후사의 인식 5』, 한길사
- 김창진, 2008, 『사회주의와 협동조합운동-혁명 전후 러시아의 국가와 협동조합, 1905~1930』, 한울, 2008
- 남성욱, 2016,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한울아카데미
- 박종효, 2010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I』, 선인
- 박후건, 2013, 「북한 경제의 재구성」, 『현대북한연구』 16-3
- 변학문, 2015, 『북한의 기술혁명론: 1960~70년대 사상혁명과 기술혁명의 병행』, 서울대학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 윤경섭, 2008, 『1950년대 북한의 정치갈등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이종석, 2000,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 이주철, 1995, 「토지개혁 이후 농촌사회의 변화: 1946~1948년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16
- 이주철, 2008, 「1950년대 북한 농업협동화의 곡물 생산성과 연구」, 『한국사학보』 31
- 이태섭, 2001, 『김일성 리더쉽 연구: 수령체제의 성립 배경을 중심으로』, 들녘

사학연구 제123호(2016. 9)

- 서동만, 2005,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 선인
- 장미성, 2009,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의 일상과 내면 연구」 『학림』 30
- 전현수, 2002,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대구사학』 68
- 중앙정보부, 1977, 『북괴간부 및 당원학습자료』
-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http://www.unilaw.go.kr>

## Abstract

# The Backgrounds of Theses on the Socialist Rural Question in North Korea

Chung Jin-A

North Korean government merges and integrates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ith 'Ri' as a unit right after farm land arrangement. As a result, the average size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increases to 300 households or 500 Jeongbos in acreage under cultivatio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refurbished through New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Standard Rules'(tentative) are new associations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previous associations. Land and production tools owned by members belong to the new cooperative association, and members live and consume in the community. To remodel lagged productivity and old ideology of farmers, a cultural revolution was propelled together.

However, from 1958 when the land arrangement was completed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were set in place, productivity decreased or stagnated and farmers were deviated. North Korean government faced a fundamental woe why they could not encourage farmers' spirit when construction of socialist society is propelled in full scale while revolutionary heat of farmers was heightened when land reformation or composit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was performed. North Korean government found the answer from the fact that they did not continue revolution in rural areas. It

is continuous revolution theory that farmers and farming villages that drop behind comparing to city and city laborers that give an impetus to rapidly developing productivity continuously propel revolution without stoppage.

North Korean government propelled ideology, technology and cultural revolutions based on continuous revolution theory to go toward socialism and communism not staying i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The goal of socialist Rural theses is to make the whole society working class, to give an impetus to productivity development and to march toward ideal of socialism and communism by removing difference between laborers achieving rapid productivity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workers experiencing productivity stagnation.

For this, North Korean government transformed cooperative associations into cooperative farms.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achieve brainwashing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development by homogenizing farming, farmers and cooperative associations based on engineering, workers and national system rather than accommodating them through accepting characteristics of agriculture and independency of cooperative associations, considering agriculture, farmers and cooperative association distracted, transitional and unstable.

Although cooperative farms were owned by cooperative associations, they were nothing more than national farms from the perspective of operational method. During this process, farmers were not the ones who realize voluntary solidarity i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s but members of the cooperative farm and passive existences following the plans by the state. Finally, dynamics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has disappeared although road map of North Korean socialists' agricultural system construction was completed.

Keywords : Socialist Rural Theses(Theses on the Socialist Rural Question),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Standard Rules,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national farm, ideology revolution, technology revolution, cultural revolution

